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3. 8. 25 편집&발행인 김중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동향

2023.8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주요 동향	02
2. 국외 항만 주요 동향	12
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20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1 부산항, 일본 가나자와항과 물류연계 협력 MOU 체결
- 2 인천항, 한-중 카페리 여객 운송 재개
- 3 광양항,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 착수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1 중국 산둥성, 항만 클러스터 건설 위한 3개년('23~'25년) 실행계획 발표
- 2 美 타코마항, 2040 탈탄소화 공약 발표
- 3 흑해항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감 고조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1 컨테이너, 파나마운하 통행 제한으로 컨테이너선박 대기시간 증가
- 2 철재, 국내 상반기 누적 조강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
- 3 석유화학업계, 불황 속 신사업 확대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항만공사(BPA), 일본 가나자와항과 물류연계 협력 MOU 체결¹⁾

- »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8월 3일 일본 가나자와항 관리청인 이시카와현과 물류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함
- 이번 MOU 체결은 부산항과 가나자와항 간 항로 활성화 및 물동량 증대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등을 포함하여 물류 원활화를 위한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함
- 현재 부산항과 가나자와항 간에는 주당 8편의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세계 2위 중장비업체인 코마츠 등의 대형 화주가 해당 항로를 이용하고 있음
- » 부산항은 아직 일본 내항 피더가 기항하지 않는 가나자와항과의 협력을 강화해 이시카와 지역의 수출입 허브항만 역할을 지속 수행하고 많은 물동량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 밝힘
- '21년 발생한 물류대란으로 일본 지방 화주의 부산항 이용에 대한 불안감 발생 및 일본 내항피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22년 일본 서안으로 내항피더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부산항과 일본 지방항만의 환적물동량은 감소하고, 일본 주요항만의 환적물동량이 증가함
- 일본 주요 항만의 물동량은 부산항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으로 해당 MOU 체결을 통해 일본 지방항만과의 협력을 강화함
- 한편,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 주요항으로 화물을 집중시키기 위해 내항 피더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일본 지방항만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BPA, 자율운항선박 대응 스마트항만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확보²⁾

- » BPA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자동계류장치 설계 등을 위해 계류장력 데이터를 측정 및 분석함
- 계류장력이란, 부두에 접안한 선박이 움직이도록 못하게 고정하는 계류줄과 이를 묶어두는 쇠기둥인 곡두에 가해지는 힘을 의미함
-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해서는 자동계류장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선박의 선종, 선급, 화물량, 풍랑 등에 따라 변화하는 장력 데이터 정보가 중요함
- BPA는 해당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항 내 컨테이너 선박 및 국제 카페리선의 계류줄에 특수 센서를 부착함

1) 부산항만공사(2023.08.04.),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816&idx=30444>(2023.08.14. 검색)

2) 부산항만공사(2023.08.17.),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816&idx=30504>(2023.08.18. 검색)

- » BPA는 앞서 세계 최대 규모의 24,000TEU급 컨테이너선 계류장력을 측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16,000TEU급 컨테이너선과 2만 톤급의 카페리선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함
- '21년 해양수산부 주관의 '자율운항선박-스마트항만 연계기술 개발'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부터, 해당 데이터를 측정 및 분석하고 있음
- 하반기 중에는 Ro-Ro선 및 크루즈선 등 다양한 선종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임
- » 향후 해당 데이터는 부산항의 안전한 계류시설 기준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며, 나아가 해외 글로벌 항만들과도 데이터 활용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임

2) 인천항

① 한-중 카페리 여객 운송 재개³⁾

- » 코로나19로 '20년 1월 이후 중단된 한중 카페리 여객 운송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됨
- 청다오항에서 118명이 승선한 카페리 선박이 지난 8월 12일에 인천항 국제 여객 터미널에 입항하면서 '20년 6월 개장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첫 여객을 맞이함
- 한중 카페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물만 운송해왔으나 최근 주변국들의 엔데믹 선언과 방역규제 완화에 따라 여객 운송도 재개됨
-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23년 9월 중으로 인천항~북중국을 연결하는 한-중 카페리 항로 대부분이 여객 운송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인천항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됨

② 인천항 '23년도 상반기 중고자동차 수출 실적 역대 최고치 기록⁴⁾

- »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23년도 상반기 중고차 수출 물동량은 약 23만 5천 대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인 '19년 19만 6천 대를 상회함
- 수출 중고차의 국가별 비중은 리비아 26.4%, 튀르키예 11.1%, 이집트 10.9%, 요르단 7.1%, 키르기스스탄 5.9% 등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인천항을 통해 중고차가 수출되는 방법은 내항에서 자동차운반선에 선적하는 방식과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신탄 또는 남항의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선적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음
- 이 중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호황은 전용선박 운송에서 컨테이너 운송방식으로 전환된 것에 기인함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3.08.13.),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5168&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 (2023.08.18.검색)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3.08.01.),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5112&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2\(2023.08.18.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5112&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2(2023.08.18.검색))

3) 여수·광양항

① 광양항 율촌 용·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 착수⁵⁾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지난 7월 31일 광양항 율촌 용·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 율촌 용·복합 물류단지는 광양만권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물동량 창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조성됨
- YGPA는 '30년까지 총 5,6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32만 m²의 부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조속한 부지공급을 위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총 3단계(1단계 '27년, 2단계 '29년, 3단계 '30년)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 완료 이후 부지를 공급할 계획임
- 한편 YGPA는 이번 율촌 용복합 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4조 9,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80만 톤의 물동량 창출 효과, 1만 4,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물류신문(2023.08.01.),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051> (2023.08.03. 검색)

4) 울산항

① 차세대 친환경 선박연료인 그린메탄올,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선박에 공급⁶⁾

»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선박에 그린메탄올 1천 톤을 공급함

- 그린메탄올은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 및 탄소저감 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선박연료를 의미하며, 국내 친환경 선박 연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항만 내 친환경 선박 연료 실증사업'을 통해 이루어짐
- 그린메탄올 연료를 공급받은 선박은 '에이피 몰러 머스크(A.P. Moller-Maersk)' 그룹이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한 2,1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그룹이 국내 조선소에 건조를 의뢰한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선박 19척 중 첫 번째로 건조된 선박임
- 해당 선박은 울산항을 출발, 수에즈운하,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등을 거쳐 덴마크 코펜하겐까지 총 21,500km를 운항하며, 전통연료 대비 탄소 배출량이 8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망됨
- 그린메탄올을 보관·공급한 기업은 울산항에서 2개 부두를 운영하는 오드펠터미널 코리아이며, 세계 최대 그린메탄올 생산기업인 OCI Global이 미국 휴스턴 생산공장에서 유기폐기물 등으로부터 생산한 바이오가스로 그린메탄올을 생산하여 울산항에 공급함

» 한편, 해당 선박에는 자원재활용을 통해 생산한 바이오디젤 연료도 공급됨

-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을 원료로 생산하여 탄소저감 효과가 약 75%에 달하는 친환경 연료로서, 해당 선박에는 국내 최초로 1,250톤 공급됨

6)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3.07.17),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7270 (2023.08.13. 검색)

- 공급된 양은 폐식용유 약 90만 개(가정용 1.8L 기준)를 활용한 규모로, 자원 재활용을 통한 선박 연료 공급이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음

» 이번 친환경 선박연료의 성공적인 공급은 해양수산부, UPA 및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준비한 결과임

- 신속한 행정처리 및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과 친환경 연료 공급을 위한 협의체(TF) 구성, 국내 법령과 행정절차 이행,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을 착실히 준비한 결과임
- 울산항만공사(UPA)는 올해 초부터 해운선사, 조선사, 탱크터미널, 친환경선박연료 제조사, 선박연료공급업체 등과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음

5) 평택·당진항

① 평택시, 평택항-중국 타이창 컨테이너 항로 활성화 협약 체결⁷⁾

» 평택시는 지난 8월 8일 평택항과 중국 타이창을 연결하는 TIS2(Taicang Incheon Service 2)항로 운항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함

- 협약식에는 평택시, 평택시의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주)천경해운 등 유관기관 대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 TIS2항로는 (주)천경해운에서 629TEU급(5,275톤급) 컨테이너 전용선 'M/V XIN TAI PING' 1척을 투입하여 인천-평택-중국 난통-타이창을 기항하는 주 1항차 서비스임
- 이번 협약은 연간 1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규항로의 초기 정착과 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임
- TIS2 항로는 지난 '23년 6월 2일 취항 이후 현재까지 약 1,700TEU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여 지역 내 경제적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7) 평택시 보도자료(2023.08.08.),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03060000&bldx=291371&ptIdx=90>(2023.08.16. 검색)

6) 포항항

① 에코프로, 인도네시아로부터 포항항 통해 니켈 수입 시작⁸⁾

» 지난 8월 16일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QMB에서 포항항을 통해 니켈 400톤을 수입함

- 에코프로는 이번 첫 물량을 시작으로 매년 6천 톤의 니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예정임
- 에코프로는 이차전지 광물에 대한 글로벌 경쟁 심화로 핵심 광물인 니켈 확보를 위해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QMB의 지분 9%를 인수함
- QMB에서 공급받은 니켈은 이차전지용 전구체 연료인 황산니켈로 전환된 후, 전구체로 제조해 양극재 생산 기업에도 공급하게 됨

8) SBS BIZ(2023.08.17.), <https://biz.sbs.co.kr/article/20000131813>(2023.08.17.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동해항~일본 마이즈루항 국제여객선 항로 개설 여부 8월 결정⁹⁾

- » '23년 10월 개설 예정인 동해항~일본 마이즈루항의 국제여객선 취항 여부가 8월 내 결정될 예정임
- 동해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 간 국제카페리 '이스턴드림호'를 운영하고 있는 두원상선이 마이즈루시와 항로 개설을 위해 협의 중임
- 두원상선은 동해항~마이즈루 간 항로에 대한 외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고 있으나 화물 수송 수요가 감소해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동해시는 일본 마이즈루시와 인센티브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경제성 문제로 인해 취항이 지연되고 있음
- » '21년 3월부터 두원상선은 한·러·일 국제여객선 항로를 취항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본이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면서 일본의 화물 수송 수요가 급감, '22년 5월부터 일본 항로 운항을 완전 중단한 상태임
- 현재는 여객선 운항 재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2년 10월 정부는 부산항-동해항과 일본 후쿠오카·오사카·시모노세키·쓰시마-마이즈루를 연결하는 국제여객항로를 허용, 부산항은 현재 정기항로를 운항하고 있음

9) 강원도민일보(2023.08.03.),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97141>(2023.08.07. 검색)

8) 목포항

① 목포해역 해양사고 3건 중 1건은 여름철 사고¹⁰⁾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최근 5년간 목포해역 해양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해양사고 153건 중 33.3%인 51건이 여름철에 집중됐다고 밝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목포항 등 목포 지역 해역에서 최근 5년간 여름철에만 51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봄철(40건) 대비 연중 해양사고 증가폭이 큰 시기인 것으로 나타남
- 여름철 해양사고 중 침수 및 충돌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서 기관손상(13.7%), 화재폭발(9.8%), 해양오염(9.8%) 순임
- 이는 목포해역의 경우 협수위가 많고 잦은 안개가 발생하는 특성상 선박 충돌 등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섬이 많고 조석간만의 차이가 커 항해 위험 요소가 많은 편임
- 또한 목포의 경우 선박검사 대상 척수가 1만 2,000여 척에 달하고 목포운항관리센터 관할 연안여객선은 27항로 44척으로 공단이 관리하는 전체 항로 중 26.2%를 차지해 기본적인 항행 교통량이 많은 편임
- 나아가 여름 휴가철에는 낚시어선, 레저선박 등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해수욕장 개장 및 섬 여행으로 인한 관광객이 증가하여 사고 위험이 높음
- 이에 KOMSA는 여름철 해상교통 여건에 따른 맞춤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목포지사의 경우 관리 선박 중 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78%로 높은 만큼 어선 사고방지에 집중할 계획임

10) 머니투데이(2023.07.2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2015010266826>(2023.08.16. 검색)

9) 군산항

① 군산항~중국 스다오항 여객운송 재개¹¹⁾

» 군산항에서 중국 산둥성 스다오(石島)항을 잇는 카페리 여객 운송이 8월 21일 재개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입국 폐쇄 조치로 지난 '20년 2월부터 컨테이너 화물만 운송되었으나 최근 항로 운항 선사인 석도국제해리와 중국 당국이 양국간 승객 입·출항 승인에 합의함
- 이에 석도국제해리는 21일부터 중국 스다오항을 출항해 군산항으로 여행객 70여명을 운송하며, '23년 연말까지 중국의 단체여객 예약은 약 2,3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고정적인 여객 수요 확보를 통해 여객 운송 실적이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되면 군산항 뿐 아니라 인근 지역 경제활성화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11) 연합뉴스 (2023.08.17),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70958000557inp1195m>, (2023.08.18 검색)

10) 마산항

① 해양수산부, 마산항 등 선박 내 전기차 화재 예방 훈련¹²⁾

» 해양수산부는 8월 18일부터 마산항을 비롯한 전국 연안 카페리 여객선 기항지 7곳에 대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훈련을 진행함

- 이번 훈련은 선박에 실린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마련되었으며 신속한 사고 발생 전파, 여객 및 선원 대피, 전기차 화재 대응 특수 장비를 이용한 진압 등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예정임
- 앞서 해양수산부는 '23년 6월 '카페리 선박 전기차량 운송 시 화재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작성해 관계기관 및 여객선사에 배포함

12) 국제신문(2023.08.1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081799099005245>(2023.08.17.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신국제육해무역회랑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무역 경쟁력 확대¹³⁾

- » 신국제육해무역회랑으로 중국 서부 지역과 아세안 국가 간의 무역량이 크게 증가함
 - 신국제육해무역회랑은 '17년 중국 서부 지역과 아세안 국가들이 공동으로 건설한 물류 통로로, 중국 일대일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임
 - '22년 기준 약 75만 6천 TEU의 물동량이 해당 통로를 통해 교역되었으며, 이는 '17년 같은 기간 대비 223배 증가한 수치이며, 운송 품목도 50개에서 940개 이상으로 확대됨
- » 특히 중국 서부에 위치한 주요 기업들은 해당 회랑 건설에 따라 기존 운송 루트 대비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힘
 - 중국 총칭에 본사를 둔 자동차 제조업체인 창안은 해당 회랑을 통해 중앙아시아와의 교역 시간이 기존 두 달에서 한 달로 감소하였으며, '23년 상반기 기준 자동차 수출량이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17만 8,000대를 기록함
- » 한편, 중국은 국내외 물류 간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항로 주변 주요 항만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 성장세를 위해 복합운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힘

② IMF, 중국의 경제적 불안으로 세계 경제 회복 둔화 전망¹⁴⁾

- » '23년 7월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0.2%p 상향한 3.0%로 수정 전망하였으며, 중국은 5.2%로 유지함
- » 중국의 전망치 유지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동산 문제 등으로 경기 회복의 둔화를 우려하였으며, 이는 세계 경제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IMF는 올해 초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의 약 30% 이상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의 도산 위기, 부진한 소비,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에 대응한 재정 긴축 영향 등 중국으로 인한 세계 경제 성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함
- » 특히, 중국의 이러한 경제적 불안은 주요 교역 국가와의 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 한편,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화, 극단적인 날씨 등의 추가 변수 발생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힘

13) Chinadaily(2023.07.26.), <https://www.chinadaily.com.cn/a/202307/26/WS64c0bbfaa31035260b8189c3.html>(2023.08.03 검색)

14) SCMP(2023.07.25.),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228876/imf-says-chinas-economic-malaise-holding-back-global-recovery-cross-border-spillovers>(2023.08.03 검색)

③ 산둥성, 항만 클러스터 건설을 위한 3개년(2023~2025) 실행계획 발표¹⁵⁾

» 산둥성은 지난 8월 8일 핵심경쟁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항만 클러스터 건설을 위한 3개년(2023~2025) 실행계획을 발표함

- 칭다오항을 중심으로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내수 중심의 자립화경제를 기반으로 국제무역을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쌍순환(dual-circulation)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리자오, 옌타이, 웨이하이, 웨이팡항 등 주변 교통 요충지에서 이를 지원할 계획임

» 해당 계획을 통해 산둥성은 '25년까지 총 항만 물동량 20억 톤, 컨테이너 4,000만 TEU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컨테이너 및 벌크, 원유, LNG 터미널 확대를 포함하여, 물류센터 구축 및 국제여객을 위한 서비스 최적화 등을 진행할 계획임
- 또한, 항만과 배후부지의 연결을 강화하고, 주요 국가와의 신규 항로 서비스 개설 및 해상철도 복합 운송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임
- 이 외에도 해상 보험 분야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금융 기업을 장려할 예정이며, 항만 및 해운 분야 개혁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를 모색할 것이라 밝힘

15) Charming Qingdao(2023.08.10.), http://qingdao.chinadaily.com.cn/2023-08/10/c_909785.htm(2023.08.18 검색)



2) 아시아

① 싱가포르항, 선박간 최초의 메탄올 벙커링 수행¹⁶⁾

- ▶ 벙커링 업체 홍람마린(Hong Lam Marine)은 지난 7월 27일 싱가포르항에서 처음으로 STS(ship to ship) 방식으로 메탄올 벙커링에 성공함
- 금회 급유작업은 한국 현대 삼호조선소에서 건조되어 명명식을 위해 코펜하겐으로 항해중인 머스크사의 2,100TEU급 선박의 메탄올 벙커링임
- MPA(싱가포르해사항만청)는 메탄올 연료의 성공적인 보급은 싱가포르항이 세계 최대 연료보급 허브로서 신재생 에너지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함

② 카오슝항의 CMA-CGM 터미널, 하이브리드 RTGC 구축 예정¹⁷⁾

- ▶ CMA-CGM 카오슝 터미널은 크레인 제작업체인 Konecranes社에게 7대의 하이브리드 RTGC(Rubber Tire Gantry Crane)를 주문함
- CMA-CGM 터미널은 카오슝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하이브리드 RTGC를 주문하였으며 해당 크레인인 '24년 4분기에 인도 예정임

③ ONE, 태국-중국-일본-베트남 연결 신규서비스 발표¹⁸⁾

- ▶ 일본의 컨테이너선사인 ONE(Ocean Network Express)은 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을 연결하는 '태국 하카타 익스프레스(THX)' 서비스를 발표함
- 해당 신규 서비스는 방콕~람차방~호치민~난사~하카타~오사카~고베를 거치는 노선으로, 오는 8월 10일 방콕에서 첫 출항 예정임
- ONE은 이번 신규 서비스 개통을 통해 람차방에서 하카타까지 10일 만에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편 ONE은 서비스 노선을 확장하고 있는데, 올해 5월에는 기존 IBESCO 노선에 폴란드의 그다니아(Gdynia)항을 추가하였고, 유럽과 지중해,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을 연결하는 LUX(LatinEast-Coast Europe Express)를 선보임

16) Seatrade-maritime (2023.7.28.), <https://www.seatrade-maritime.com/sustainability-green-technology/singapore-carries-out-first-ship-ship-methanol-bunkering-maersk/> (2023.8.18. 검색)

17) Porttechnology. (2023.8.9.),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cma-cgm-kaohsiung-terminal-orders-new-konecranes-hybrid-rtgs/> (2023.8.18. 검색)

18) porttechnology(2023.07.19.),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one-introduces-new-service-in-asia/> (2023.07.26. 검색)



④ 일본 한신항·케이힌항, 선박용 배출가스 제로 충전기 설치 예정¹⁹⁾

» 일본은 국내외 화물 및 선박이 집중된 국제전략항만인 한신항과 케이힌항에 선박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할 계획임

- 일본은 최종적으로 '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46% 감축을 중간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60%가 발생하는 항만지역의 탈탄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에 한신항과 케이힌항에 시범적으로 선박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고 관련 생태계를 개발하고 유지·관리하고자 함
- 또한 고베시와 요코하마시의 항만국도 향후 참여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항만 지역의 선박 배출 제로화, 항만 내 전기차 확대 등 탈탄소화를 통해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할 계획임

19) OFFSHORE ENERGY(2023.07.18.), <https://www.offshore-energy.biz/japan-set-to-install-zero-emission-chargers-for-ships-in-hanshin-port-and-keihin-port/> (2023.07.26. 검색)



3) 미주

① 미국 타코마(Tacoma)항, 2040 탈탄소화 공약 발표²⁰⁾

» 타코마항만위원회는 '40년까지 항만에서 통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범위 1과 2(Scope 1&2)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50년 탈탄소화 목표를 앞당길 계획임

- 배출 범위 1과 2는 항만 소유의 건물, 차량, 항만시설의 전력 소비 등의 배출에 해당하며, 선박, 트럭, 민간 임대시설 등 배출 범위 3과 달리 항만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배출임
- '21년, 북미 서안에 위치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밴쿠버항, 워싱턴(WA)주의 터코마항 및 시애틀항, 통합운영사인 NWSA는 '50년까지 항만 활동에서 배출 중단을 선언한 바 있으며, 북서항만 청정 대기 전략(Northwest Ports Clean Air Strategy)은 4개 항만 간 협력과 장비, 연료, 인프라의 변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타코마항은 '40년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산의 효율적 관리 전략을 수립했으며, 전기자동차 전환, 건물의 천연가스를 전기로 교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재생가능한 연료 구입 등이 포함됨
- 또한, 최근 승인된 행정부 건물 전기차충전소 프로젝트와 같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등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함

» 타코마항은 '21년에 '청정 공기 전략 실행 계획(Clean Air Strategy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한 바 있음

- 계획에는 '항만 소유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지속가능한 건축기술 접목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 '항내 5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포함됨
- 인접한 시애틀항에서도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전략과 실행계획을 채택함

② 미국 휴스턴항, 6부두 터미널 확장 완료²¹⁾

» 미교통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USDOT)는 터미널의 용량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약 8천만 달러를 투자함

- 북컨테이너 야드 및 3부두 재건, 게이트 확장 등 기존 항만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부두 및 항만 개선, 화물 보관소, 무공해 차량, 충전 인프라, 터미널 공간 증대, 해협(Houston Ship Channel) 증심 및 확장 사업인 프로젝트 11(Project 11) 등이 포함됨
- 새로운 부두는 올해 10월 운영이 시작될 예정임

20) OFFSHORE ENERGY(2023.07.19.), <https://www.offshore-energy.biz/port-of-tacoma-makes-2040-decarbonization-pledge/>(2023.08.14. 검색)

21) Port Technology(2023.08.09.),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houston-celebrates-completion-of-wharf-6-project/>(2023.08.14. 검색)

③ 캐나다 서안 항만 노사협상 타결²²⁾²³⁾²⁴⁾

- »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nternational Longshore and Warehouse Union, ILWU) 소속 캐나다 노조는 8월 4일 조합원 투표에서 노사간 잠정 합의안 승인을 발표함
- 노조의 앞선 계약 거부에 대응하여 캐나다 정부는 관계 위원회에 분쟁 개입 및 중재를 지시했으며, 7월 30일, 노조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락함
- 투표결과 ILWU 소속 조합원 중 74.66%가 새로운 계약에 찬성했으며, 캐나다 노동부 장관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사 고용주 협회(British Columbia Maritime Employers Association, BCMEA)와 함께 ILWU의 협정 기준을 발표함
- BCMEA는 성명을 통해 갱신된 단체협약은 '캐나다 서부 해안 항구의 미래의 확신과 안정성 제공과 동시에 BC주 해안 인력의 기술과 노력을 인정하는 임금, 혜택 및 훈련의 증가를 포함한다'고 밝힘
- 다만, 7월에 발생한 13일간의 파업 및 계약 협상 분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역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④ 파나마운하, 수심제한 연장으로 일일 통행 감소²⁵⁾²⁶⁾

- » 파나마운하청(Panama Canal Authority, ACP)은 지속되는 가뭄으로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최대 수심 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함
- ACP는 우기에 보통 하루 평균 35~36척의 선박이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며, 선박당 약 5,100만 갤런의 물을 사용하나, 지난 5월과 6월은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루 평균 32.58회와 32.13회 통과함
- 7월 30일부터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원양 선박은 네오파나막스급 10척, 파나막스급 22척 등 하루 평균 32척이 될 예정이며, ACP는 6월 흘수 제한을 0.5피트 조정했던 것을 유지하여 네오파나막스급 컨테이너 흘수를 44피트(13.41m)로 제한함
- 파나마는 7월에 보통 폭우가 내리지만, 현재 강수량이 적고 긴 건기를 겪고 있어 ACP는 기상 조건이 지속되는 한, 흘수를 현재 제한 수준에서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6월 초, 미국 경제학자들과 주정부 관리들은 파나마운하의 심각한 가뭄으로 선박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며, ACP는 이미 올해 초부터 물 효율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22) Port Technology(2023.08.07),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ilwu-canada-workers-accept-new-contract-in-latest-vote/>(2023.08.14. 검색)

23) Seatrade Maritime(2023.07.27),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canadian-dockworkers-union-and-employers-agree-negotiated-labour-deal/>(2023.08.14. 검색)

24) Seatrade Maritime(2023.07.27),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canadian-west-coast-dockworkers-vote-yes-labour-deal/>(2023.08.14. 검색)

25) Port Technology(2023.07.27),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anama-canal-extends-ship-depth-limit/>(2023.08.14. 검색)

26) Seatrade Maritime(2023.07.27), <https://www.seatrade-maritime.com/panama/panama-canal-reduce-daily-vessel-transits-due-drought/>(2023.08.14. 검색)

4) 유럽

① 발렌시아항, 육상 전력 공급 프로젝트 시작²⁷⁾

▶ 발렌시아항은 Transversal Costa-MSC 부두의 육상 전력 공급(Onshore Power Supply, OPS)을 위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함

- 발렌시아 항만공사는 선박 전기 연결 및 해당 시설의 유지 보수 프로젝트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고 있으며, 부두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한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을 공동으로 시작함
- 이 프로젝트는 약 1,240만 유로의 금액으로 진행될 예정임
- OPS는 항만의 탄소 배출 감소에 매우 유용한 시설로, 이 시스템은 선박이 부두에 정박해 있는 동안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보조 엔진 사용 중단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함
- 발렌시아항의 OPS 프로젝트는 전력 변전소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이 전력 변전소는 Transversal Costa-MSC 부두에 녹색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임
- 발렌시아항은 '30년에 배출량 제로 항만이 되기 위한 목표를 추진 중이며, 수소 에너지 사용, 태양광 발전소 설치, 철도 연결을 통한 복합 운송 등의 다른 프로젝트 또한 준비 중임

② 흑해 항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감 고조²⁸⁾

▶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용했던 흑해 곡물 협정이 지난달 러시아의 철퇴로 결렬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는 흑해에 인도주의적 회랑'을 발표한 후 곡물 수출을 지속하고 있음

- 러시아는 지난달 흑해 곡물 협정을 철회하면서 우크라이나 항만으로 향하는 모든 선박은 군사적 표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현재 이 회랑을 존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임
- 우크라이나는 8월 15일 오데사에서 남서쪽으로 약 260km 떨어진 다뉴브강에 위치한 레니항 소재 곡물 저장 시설이 러시아 공격으로 인해 손상됐다고 발표함
- 또한 8월 13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화물선에 경고 사격을 실시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둘러싼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③ 머스크, '23년도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최대 4% 감소 전망²⁹⁾

▶ 머스크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연초 부진한 시작과 지속적인 재고 축소를 감안할 때 '23년도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이 약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머스크는 지난 5월 '23년도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을 -2.5%~0.5%로 예측했으나, 이번 분기 예측치에서 감소 폭을 확대 조정함

27) Reuters(2023.08.08.),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valencia-commences-docks-electrification/>(2023.08.17. 검색)

28) BBC(2023.08.16.),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6518504>(2023.08.17. 검색)

29) Seatrade Maritime(2023.08.04.),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maersk-sees-global-container-volumes-slump-4-year>(2023.08.18. 검색)

- 올해 2분기는 경기 침체 우려와 높은 재고로 인해 컨테이너 무역 수요가 감소했으며, 북미, 오세아니아, 극동아시아 지역의 수입 증가세 저조에 따라 2분기 컨테이너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4.0%~6.5% 감소함
- 2분기 머스크의 적재량은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으며, 평균 적재 운임 또한 FEU당 2,444달러로 전년 동기 4,983달러 대비 51% 감소함
- 이에 따라 '23년 2분기 머스크의 매출은 '22년 2분기 매출 217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감소함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멜버른항, 양곡 수출 물동량 증가³⁰⁾

- » '23년 7월 기준 호주 멜버른항의 밀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맥아는 37% 증가함
- 양곡은 멜버른항 수출 물동량의 30%를 차지해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년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대한 관세 도입 이후 중국으로 보리 수출이 중단되면서 '23년 보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으나 중국으로 밀 수출은 지난 6년간 연평균 22% 증가하면서 강한 성장세를 보임
- '23년 국가별 수출 비중에서 베트남이 14%를 차지하여 12%를 차지한 중국을 앞질러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동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 '17년부터 '20년까지 가뭄의 영향을 받아 호주 동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국에서 소비되던 양곡이 가뭄이 해소됨에 따라 수출로 전환되어 멜버른항의 양곡 수출 물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② 호주 뉴캐슬항과 글래드스톤항 풍력 발전에 투자³¹⁾

- » 복합물류 서비스 제공업체인 Oceanex는 호주 뉴캐슬항과 글래드스톤항에 해상 풍력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함
-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호주 퀸즐랜드주(州)의 온실가스 배출을 '40년까지 96% 줄이는 것이며 '35년까지 공공 소유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청정 에너지 허브로 전환하는 것임
- 뉴캐슬항은 풍력 발전기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철재를 생산하기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며 개발 기간은 약 5년으로 추정함
- 글래드스톤항은 거대한 풍력 발전기 및 관련 자재를 운송하기 위해 항만 배후 도로를 개선하고 있음
- 본 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의 자금과 75만 톤의 철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30) Grain central(2023.07.23.), [https://www.graincentral.com/news/grain-lifts-in-port-of-melbourne-export-profile/\(2023.08.02. 검색\)](https://www.graincentral.com/news/grain-lifts-in-port-of-melbourne-export-profile/(2023.08.02. 검색))

31) Port news(2023.08.06.), [https://www.portnews.com.au/story/8297296/australia-gets-wake-up-call-on-materials-manufacturing/\(2023.08.10. 검색\)](https://www.portnews.com.au/story/8297296/australia-gets-wake-up-call-on-materials-manufacturing/(2023.08.10. 검색))

- » 호주 정부는 청정 에너지 허브 전환을 위한 'SuperGrid' 계획을 추진하며 약 10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SuperGrid는 전통적인 Grid보다 넓은 지역 간의 전력을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계 및 전류 전송 방법임

6) 아프리카

① 아랍에미리트(UAE), 아프리카 항만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³²⁾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은 아프리카 항만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반면, UAE는 아프리카 항만에 투자를 확대함

- 두바이에 본사를 둔 DP World와 아부다비의 AD Ports는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항만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두 기업은 아프리카에서 총 12개의 항만 시설을 운영함
- DP World는 아프리카 주요 물류 회사인 Imperial Logistics를 인수하였으며 아프리카 주요 7개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DP World 전체 수익의 10%를 차지함
- AD Ports는 이집트 항만 운행사 Transmar Shipping 및 Transcargo International Company의 주요 지분을 인수, 북아프리카와 홍해 지역 항만 운영 시장을 선도하는 입지가 됨

②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더반항, 자동차 장치장 60% 디지털 전환 달성³³⁾

» 더반항은 더반 자동차 터미널(Durban Car Terminal, DCT)의 자동차 장치장 60% 이상이 디지털 전환되었다고 발표함

- 더반항은 동시에 12,500만 대를 장치할 수 있는 DCT 자동차 장치장에 총 7,561개의 장치 위치에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치장 내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
- 더반항은 차량 수출입을 위한 장치 및 출하 시간을 줄여 자동차 장치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이 프로젝트는 약 10개월간 50만 랜드(한화 약 3,500만 원)가 소요됐으며 시스템 개발, 테스트 및 활용 교육을 내부 자원과 능력을 사용해 많은 비용을 절감함
- 완전 디지털 전환은 '24년 내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간당 반출입 차량의 수 개선 정도를 측정할 예정임

32) Maritime executive(2023.07.23.),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uae-s-overarching-role-in-african-ports-development>(2023.08.05. 검색)

33) Engineering news(2023.08.08.), [https://www.engineeringnews.co.za/article/durban-car-terminal-goes-digital-2023-08-08\(2023.08.17. 검색\)](https://www.engineeringnews.co.za/article/durban-car-terminal-goes-digital-2023-08-08(2023.08.17. 검색))



③ 남아공 더반항, 부분 민영화를 통해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및 현대화 추진³⁴⁾³⁵⁾

» 더반항은 DCT 2번 부두(Pier 2)를 확장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필리핀의 ICTSI(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nc)와 25년간 합작 계약을 체결함

- DCT Pier 2는 더반항 Transnet의 가장 큰 컨테이너 터미널로 더반항 물동량의 72% 처리함
- 이번 확장을 통해 DCT Pier 2는 연간 200만 TEU의 하역능력을 280만 TEU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이는 더반항 하역능력을 330만 TEU에서 1,140만 TEU로 증가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 더반항은 ICTSI와의 장기 협약을 통해 민간 기업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터미널 현대화, 물동량 증가 및 효율성 개선을 달성하고자 함

④ 센츨리 타이어, 모로코 탕헤르 메드항 배후에 타이어 제조공장 건설³⁶⁾

» 중국 타이어 제조회사 센츨리 타이어가 8월 모로코 탕헤르메드 배후에 첫 번째 타이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함

- 센츨리 타이어는 국제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성을 위해 탕헤르 메드항 배후 20만 m²의 토지를 매입하고 약 3억 달러(한화 약 4,0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3년내에 연간 600만 개의 생산 능력을 갖춘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임
- 본 제조공장은 탕헤르 메드항과 불과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할 예정이며 현재 모로코 수출입의 50% 이상을 처리하는 탕헤르 메드항은 타이어 수출입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센츨리 타이어 제조공장 건설에는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상 가동은 '24년 하반기 또는 '25년 상반기가 될 예정임

34) Seatrade maritime(2023.07.27),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ictsi-jv-transet-develop-durban-port-terminal>(2023.08.05. 검색)

35) Cape business news(2023.08.03.), <https://www.cbn.co.za/industry-news/maritime-harbour-services/durban-port-privatisation-move-opens-door-for-cape-town/>(2023.08.05. 검색)

36) Morocco world news(2023.08.02.), <https://www.moroccoworldnews.com/2023/08/356828/chinese-tire-manufacturer-sentury-to-begin-construction-of-first-morocco-factory>(2023.08.07.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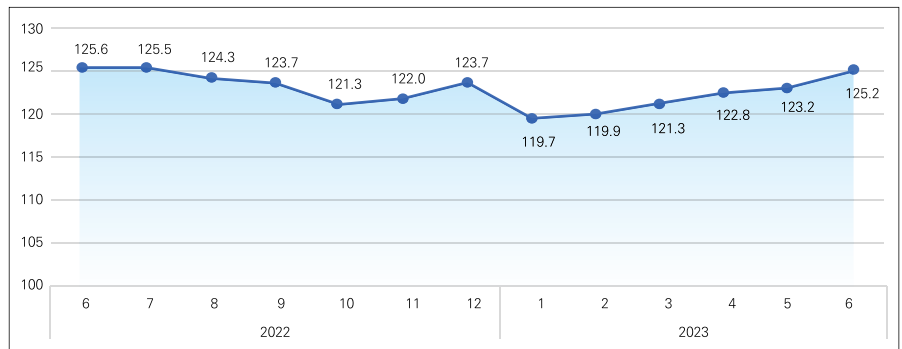
① '23년 6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0.3% 감소³⁷⁾

» '23년 6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하였으나, 전월 대비 1.6%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세 기록

- 처리량 지수의 증가는 중국과 유럽 외 지역에서의 물동량 증가에 기인하며, 유럽의 경우는 처리량이 소폭 감소함
- 중국의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는 5월 137.8에서 6월 139.2로 상승하였으며, 유럽 지역의 경우 5월 104.2에서 104.0으로 소폭 감소세를 기록함
- 글로벌 컨테이너 항만물동량을 6월 들어 회복 속도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 처리량이 감소하고 있어 유럽의 경제 회복 속도가 다른 지역 대비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7) ISL, <https://www.isl.org/en/containerindex/june-2023>(2023.08.18. 검색)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컨테이너	125.6	125.5	124.3	123.7	121.3	122.0	123.7	119.7	119.9	121.3	122.8	123.2	125.2	1.6	-0.3

주: 2015=100
자료: ISL, <https://www.isl.org/en/containerindex/june-2023>(2023.08.18. 검색)



② 파나마운하 통항 제한으로 컨테이너선 대기시간 증가³⁸⁾

- »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운하 인근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파나마 운하청은 통항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운하 당국은 선박 총수를 32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중 신-파나마스 급은 10척으로 제한함
- » 이로 인해 파나마 운하 인근 컨테이너선박의 대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약 16일~17일의 통항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운하 당국은 아시아에서 미 동부 해안으로 향하는 화물의 약 2/3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사태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화주와 선사들은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항로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임 및 운송업체의 할증 등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 한편, 시장전문가는 '24년 상반기 엘리뇨 발생에 따라 이러한 가뭄에 따른 통항 지연이 심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함

③ DP World, '23년 말까지 글로벌 컨테이너 처리능력 300만 TEU 확대³⁹⁾

- » DP World는 올해 말까지 약 300만 TEU의 컨테이너 용량이 추가 확대되어, 총 9,360만 TEU의 처리용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도미니카 공화국의 코세도항 120만 TEU를 포함하여 튀르키예의 아림카항 57만 9천 TEU, 이집트의 소크나항 50만 TEU,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항에 20만 TEU가 추가 공급될 예정임
- » DP World는 증가하는 무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프라 투자에 전념하고 있으며, 중기 목표는 연간 1억 TEU의 처리용량을 확보하여 더 나은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 밝힘
 - 한편 Drewry는 전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이 '21년 8억 5,900만 TEU에서 '25년까지 9억 3,200만 TEU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38) Seatrade Maritime(2023.08.17.), <https://www.seatrade-maritime.com/panama/panama-canal-issues-will-hit-harder-2024-shippers-warned>(2023.08.18 검색)

39) Seatrade Maritime(2023.08.17.),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dp-world-add-3-million-teu-port-capacity-end-2023>(2023.08.18 검색)

2) 양곡

① 7월 식용 곡물 수입단가 전 품목(밀, 옥수수, 채유용 콩)에서 하락세 기록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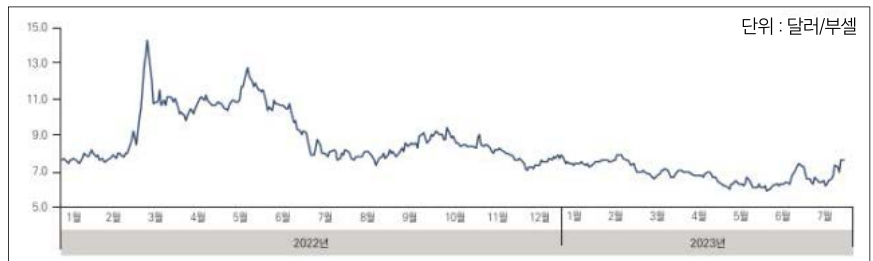
- ▶ 식용 밀의 7월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14.0% 하락한 395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식용 옥수수의 수입단가(337달러/톤)도 전년 대비 25.0% 하락함
- 7월 사료용 밀의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1.8% 상승했으나 옥수수(335달러/톤)와 대두박(578달러/톤)의 수입단가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함

② 7월 선물가격, 전년 동기 대비 16.1% 하락한 톤당 249달러 기록

- ▶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로 밀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던 '22년 8월 대비 16.1% 하락함
- 반면 러시아가 7월 17일 흑해곡물협정 연장 거부 이후 우크라이나 수출 항만(오데사 항만) 및 기반 시설(다뉴브강 곡물 저장창고) 공격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여 전월 대비 2.5% 상승으로 전환함

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국제곡물 관측월보 8월호(2023.07.31.),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322/page/1 (2023.08.18 검색)

밀 선물가격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월보 8월호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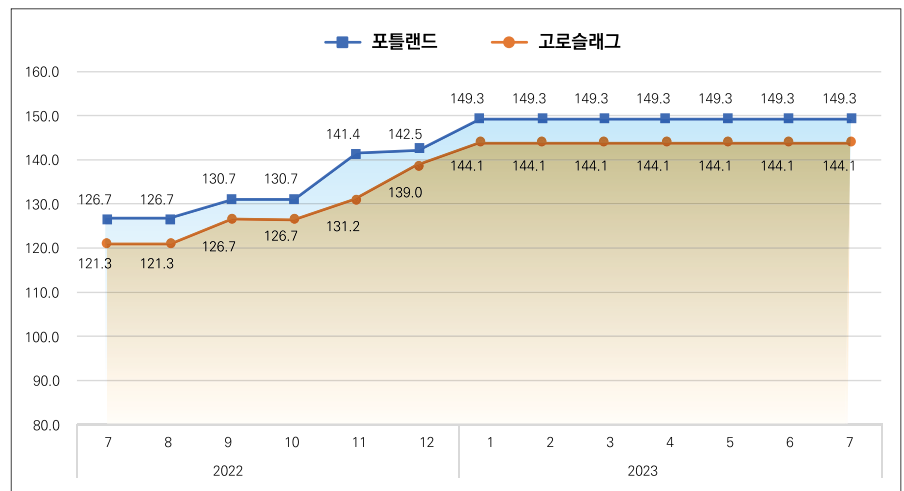
① 7월 생산자물가지수 7개월째 보합세 유지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149.3p, 144.1p를 기록,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17.9%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18.8%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1월 이후 6개월 동안 증감없이 보합세를 보임

(단위: 2015년 = 100기준)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26.4	126.7	126.7	130.7	130.7	141.4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0.0	17.9
고로슬래그	121.3	121.3	121.3	126.7	126.7	131.2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0.0	18.8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3.08.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3.08.24. 검색))



② 시멘트 가격 인상⁴¹⁾

» 쌍용 C&E는 7월 출하분부터 시멘트 가격을 기존 10만 4,800원에서 14.1% 인상한 톤당 11만 9,600원으로 적용함

- 8월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 및 레미콘 업계의 반발로 정부가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중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쌍용C&E는 가격 인상을 강행함
- 성신양회의 경우 시멘트 가격을 기존 대비 14.3% 인상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적용되지는 않음
- 다만 쌍용C&E가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타 시멘트사의 가격 인상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시멘트사는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환경설비개선비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을 제시했으나 건설 및 레미콘업계는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41) 매일일보(2023.08.15.),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686>(2023.08.1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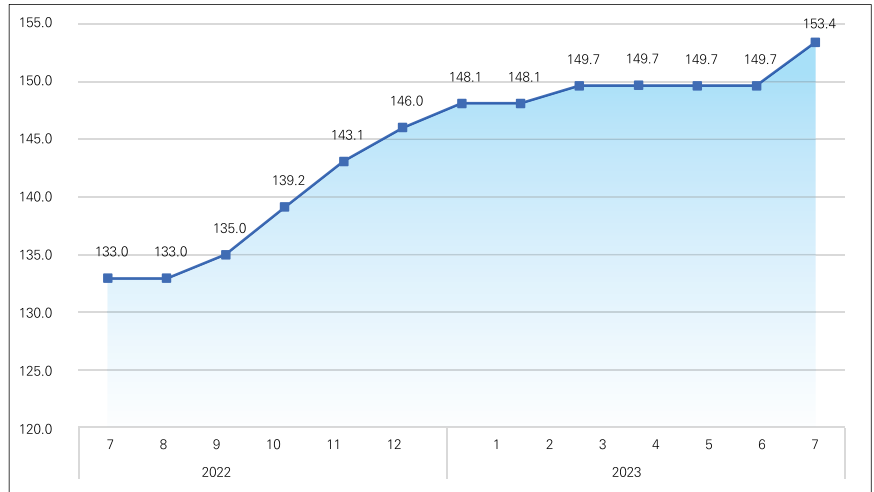
4) 모래

①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53.42p 기록

»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5%, 전년 동월 대비 15.4% 증가, “23년 2월 이후 4개월간 증감없이 보합세를 보이다가 7월 증가세를 기록함

(단위: 2015년 = 100기준)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29.6	133.0	133.0	135.0	139.2	143.1	146.0	148.1	148.1	149.7	149.7	149.7	153.4	2.5	15.4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3.08.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3.08.24. 검색))

② 골재업계, 인천 불량 골재 유통의 원인은 골재 수급 불균형⁴²⁾⁴³⁾

» 골재업계는 인천 LH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의 법적 기준 미달 등 불량 골재 유통의 원인을 골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밝힘

- 골재업계는 인천지역은 바다골재 채취가 금지된 이후로 골재 수급이 만성적으로 어려웠지만 골재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수급 경로를 거치고 있을 것으로 분석함
- 콘크리트는 골재, 시멘트, 물과 혼합재를 혼합해 생산되며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이지만 골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품질도 균일하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천지역이 건설업계에서 골재 품질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 곳이며 바다골재 채취가 어려워지면서 수급이 불안정해져 불량 골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힘

42) 대한경제(2023.08.10.),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8091623560830051\(2023.08.13 검색\)](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8091623560830051(2023.08.13 검색))

43) 인천일보(2023.08.08.),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330\(2023.08.13 검색\)](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330(2023.08.13 검색))

5) 석탄

① '23년 7월 기준 유연탄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함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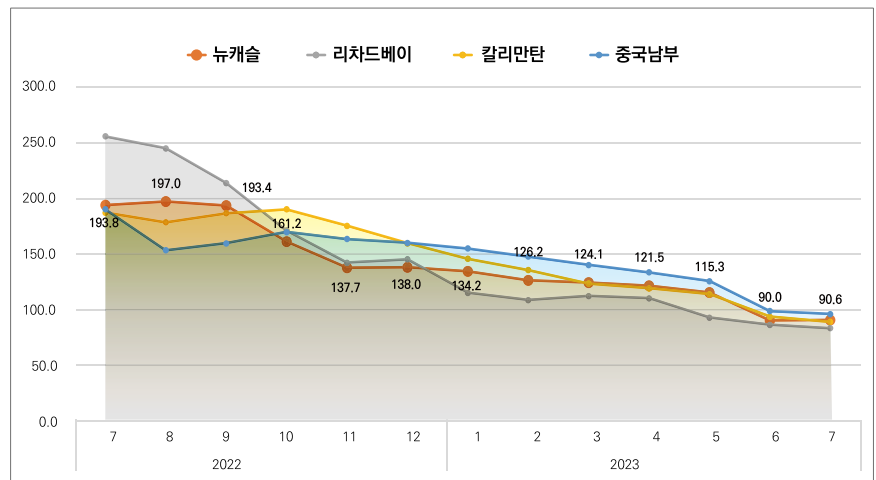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기준 연료탄 7월 평균가는 90.6달러로 전월 대비 0.7% 상승세를 기록함

- 유연탄 가격은 유가 상승과 더불어 계절성 수요 확대로 소폭 상승압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별로는 호주 뉴캐슬산이 0.7% 상승한 한편,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과 남아공 리처드베이산은 각각 5.1%, 3.4% 하락함(전월 대비 기준)

44)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 (2023.08.24. 검색)

(단위: 달러/톤)

유연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193.8	197.0	193.4	161.2	137.7	138.0	134.2	126.2	124.1	121.5	115.3	90.0	90.6	0.7	-53.3
리처드베이	256.0	245.1	213.9	171.0	142.2	145.2	114.9	108.5	112.2	110.0	92.7	86.0	83.1	-3.4	-67.5
칼리만탄	187.0	178.5	186.5	190.1	175.3	159.6	145.5	135.5	123.3	119.0	113.7	93.5	88.7	-5.1	-52.6
중국남부	190.1	153.2	159.6	169.8	163.4	159.9	155.0	147.7	140.1	133.4	125.4	98.6	95.8	-2.8	-49.6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② 삼척블루파워 석탄육상운송 노선변경 및 피해대책 요구 지속⁴⁵⁾

» 강원 삼척시 상맹방1리 주민들은 삼척화력발전소의 석탄육상운송 관련 노선변경 및 피해대책 등을 요구함

- 삼척블루파워의 삼척화력발전소는 주 원료인 유연탄을 지난 7월 18일부터 동해항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근덕IC로 나와 맹방1리 중심도로를 이용한 육상운송을 시작함
- 이로 인한 분진, 소음, 교통체증 유발, 교통사고 위험 증가, 주민건강 위협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 상맹방1리 현안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맹방1리를 가로지르는 현 노선을 대체해 근덕IC-전용도로를 이용하는 대체 노선과 주민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척시, 삼척블루파워에 발송함
-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선 변경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이 삼척블루파워에 있음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삼척블루파워는 '24년도 4월까지 총 88만 6천 톤의 유연탄을 육상운송할 계획임

45) 뉴스핌(2023.08.0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02000731>
(2023.08.09. 검색)



6) 철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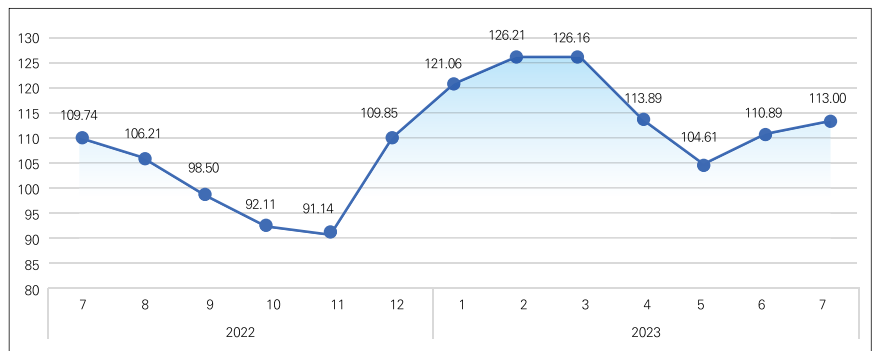
① '23년 7월 철광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한 113달러 기록

» '23년 7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13달러로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

-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 6월 중국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기대감 및 재고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 그러나 중국의 대형 부동산 기업인 '컨트리가든'이 파산 위기로 8월 철광석 가격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단위: 달러/톤)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09.7	106.2	98.5	92.1	91.1	109.9	121.1	126.2	126.2	113.9	104.6	110.9	113.0	1.9	3.0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3.08.18. 검색)



② 골드만삭스, 철광석 가격 약세 지속 전망⁴⁶⁾

» 골드만삭스는, 올해 하반기 철광석 가격은 톤당 평균 90달러 수준으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올해 철광석 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로, 하반기 기준 약 6,800만 톤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
- 중국 정부는 철광석 공급량 조절을 위해 지방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러한 소식이 오히려 철광석 가격의 낙폭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 판단함

46) 연합뉴스(2023.08.08.),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6657>(2023.08.18 검색)

47) 노컷뉴스(2023.08.17.), <https://www.nocutnews.co.kr/news/5995702>(2023.08.18 검색)

» 한편, 최근 중국의 부동산 업계의 도미노 디폴트 위기가 보도되면서, 중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철광석 가격 하방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⁴⁷⁾



7) 기타광석

① 7월 기준 광물종합지수는 2,788.3으로 전월 대비 1.9% 증가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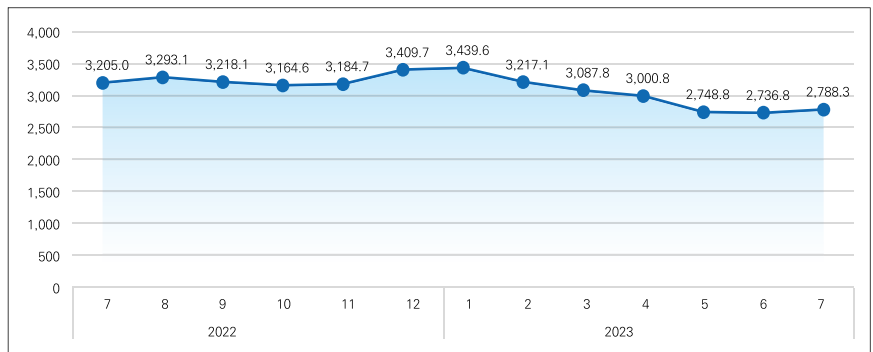
» '23년 7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1.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3.0% 하락한 2,788.3을 기록함

- 중국의 부동산산 규제 완화 추진 기대 및 미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자원시장의 상승세를 나타냄

48)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
(2023.08.24.검색)

(단위: 2016년 = 1,000기준)

광물종합지수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3,205.0	3,293.1	3,218.1	3,164.6	3,184.7	3,409.7	3,439.6	3,217.1	3,087.8	3,000.8	2,748.8	2,736.8	2,788.3	1.9	-13.0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② 영풍, 폐기 이차전지 재활용을 통한 핵심광물 추출 신기술 발표⁴⁹⁾

»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영풍은 폐기 이차전지를 셀 단위까지 분해하지 않고 모듈째 통째로 녹여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추출해내는 신기술을 개발함

- 해당 신기술은 이차전지 자원순환 분야에서 전처리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여 금속 회수율을 극대화하고 경제성을 높인 건·습식 통합 기술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영풍은 이러한 건·습식 통합 공정*으로 오는 24년경 연간 2만 톤(전기차 6~8만 대) 규모의 이차전지를 재처리할 수 있는 상용화 플랜트를 마련할 계획임

* 세계 최초로 리튬을 건식용융 공정에서 더스트(Dust)의 형태로 1차 추출, 농축된 중간 원료를 습식공정에서 2차 처리하여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 핵심소재 광물을 회수하는 독보적인 자원순환 기술

- 또한 상용화 플랜트에 배터리 모듈을 그대로 투입하는 다이렉트 피딩(Direct Feeding) 방식을 적용하여 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임
- 이러한 공법 적용을 통해 국내외 다른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존 공법 대비 핵심소재 광물의 손실을 줄임으로써, 광물 회수율은 8~10%, 부가가치는 10~15% 수준 높일 수 있음

» 이와 함께 영풍은 건·습식 통합 공정의 핵심 공정들을 모듈화 해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집중화 또는 분리 운영하는 ‘모듈 베이스 플랫폼(Module-Based Platform)’ 개념을 도입하기로 함

- 전처리, 건식, 습식 등 건·습식 통합 공정의 각 핵심 공정들을 한 곳에 집중화시키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분리해 국내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배터리 및 양극재 공장 위치에 최적화 공정만 구축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식임
- 그 외에도 영풍은 이차전지 자원순환 상용화 플랜트에 탄소 포집 및 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기술과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 STG(Steam Turbine Generator) 발전 등을 접목해 탄소 중립에 기여할 계획임

49) 철강금속신문(2023.07.19.), <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385> (2023.07.20. 검색)



③ 한-브라질, 핵심광물 무역·투자 협력 강화방안 논의⁵⁰⁾

» 한국과 브라질은 산업·통상 담당 부처간 협력 채널 강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16일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23년 1월 신설)와 무역·투자·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국장급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밝힘
- 브라질은 GDP 1조 9,200억 달러(세계 11위)의 남미 최대 시장이자 철광석 등 전통 광물 뿐만 아니라 니오븀, 니켈,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임
- 특히 자동차, 가전,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최근 브라질 내 신산업화(Neoindustrialization) 정책 추진으로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됨
-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는 무역원활화, 산업·기술, 에너지·자원, 디지털·그린·바이오 경제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실질 협력의제 발굴과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 Trade &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등 협력 메커니즘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양 부처 간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사업 기회 확대 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애로 해소 창구로 활용할 계획임

50) 에너지신문(2023.08.16.),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169> (2023.08.17. 검색)



8) 목재

① 2023년 1~6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109.3만 m³로 전년동기 대비 19.9% 감소⁵¹⁾

» 국내 건설/건축 침체로 재고 부담이 가중되어 수입물량 감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목재 수요가 감소하여 목재제품 가격의 하락 및 보험세가 진행됨

- '23년 국내 목재 품목별 누적 수입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원목은 19.9%, 제재목은 17.2%, 성형목재는 11.8%, 합판은 14.4%, 목재펠릿은 7.3% 감소함

품목(단위)	2023년 누적(1-6월)	2022년 누적(1-6월)	증감률(%)
원목(천m³)	1,093	1,365	-19.9
제재목(천m³)	795	960	-17.2
성형목재(톤)	40,854	46,331	-11.8
합판(천m³)	646	755	-14.4
파티클보드(천m³)	608	751	-19.0
섬유판(천m³)	119	122	-2.5
목재펠릿(천 톤)	1,843	1,988	-7.3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3.07.21.),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y1Gnzwr0blP7lg4nobCpirmk0sqe54wUvJgd230arhqjpcXxXiICVtmAP0rswCS.frswas02_servlet_engine5?nttid=3185826&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08.16.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y1Gnzwr0blP7lg4nobCpirmk0sqe54wUvJgd230arhqjpcXxXiICVtmAP0rswCS.frswas02_servlet_engine5?nttid=3185826&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08.16. 검색))

②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 KS 표준 마련을 위해 KS 전문위원회 개최⁵²⁾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7일 고흥 바이오연료 KS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목재펠릿의 등급별 연료 품질과 규격을 정의한 한국산업표준 제정(안)을 검토함

- 이번에 검토된 목재펠릿 KS 제정(안)은 비산업적 및 산업적 용도를 위한 등급별 목재펠릿의 품질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 것으로 과거 목재펠릿 표준과 확연히 다른 완성도를 보임
- 기존 목재펠릿 표준(KS M 3938)은 '17년도에 제정되어 운영되어왔으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다루는 사용원료 및 적용범위와 차이가 커 국제 교역에 활용되기에 문제가 있었음
- 이에 기존 표준은 폐지하고 국내 산업 현실에 맞게 ISO 17225-2의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여 표준 제정(안)을 마련함
-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KS 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요구사항과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부속서 11(목재펠릿)의 품질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임
- 이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펠릿의 국제동향과 국내 산업기반을 면밀히 살펴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규제개혁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임

51)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3.07.21.),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y1Gnzwr0blP7lg4nobCpirmk0sqe54wUvJgd230arhqjpcXxXiICVtmAP0rswCS.frswas02_servlet_engine5?nttid=3185826&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08.16.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y1Gnzwr0blP7lg4nobCpirmk0sqe54wUvJgd230arhqjpcXxXiICVtmAP0rswCS.frswas02_servlet_engine5?nttid=3185826&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08.16. 검색))

52)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보도자료(2023.07.28.), [https://nifos.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82m7QprFzd5JPVmaWfzXfjKCyN1azYJXC98ocsNXH1fXDLox5VFLdC3kWJZCA4Z.frswas02_servlet_engine5?nttid=3186030&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150&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UKFR_03_03&orgId=kfri\(2023.08.16. 검색\)](https://nifos.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82m7QprFzd5JPVmaWfzXfjKCyN1azYJXC98ocsNXH1fXDLox5VFLdC3kWJZCA4Z.frswas02_servlet_engine5?nttid=3186030&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150&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UKFR_03_03&orgId=kfri(2023.08.1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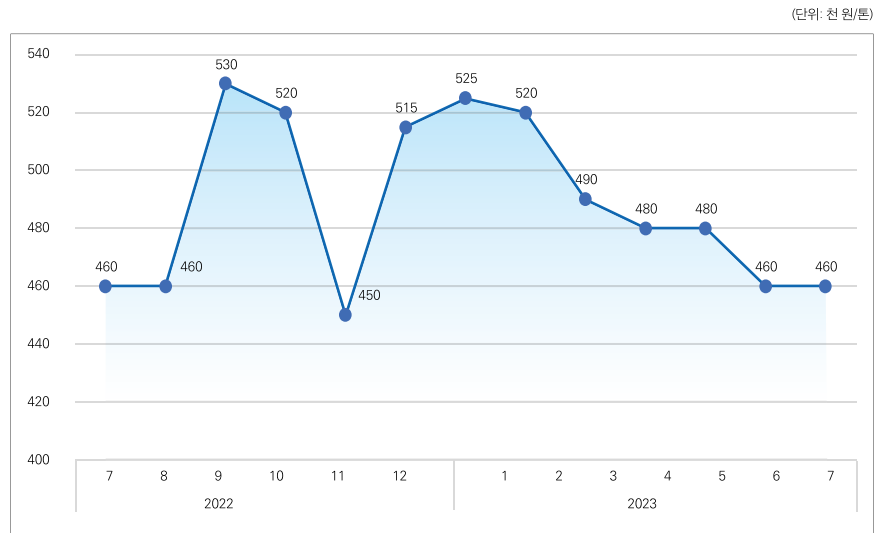
9) 고철

① 7월, 국내 고철 가격 보험세 기록

» 국내 7월 생철 가격은 톤당 46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월, 전년 동월 대비 같은 수준임

- '23년 1월 톤당 52만 5천 원을 기록한 생철 가격은 철강 수요 감소로 인해 5개월 연속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후, 6월 보험세를 기록함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460	460	530	520	450	515	525	520	490	480	480	460	460	0.0	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② 제강사 상반기 누적 고철 구입량, 작년 하반기 대비 증가⁵³⁾

» 건설 경기 부진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철강 시황 악화로 올해 상반기 제강사의 고철 구입 및 소비가 감소했으나, 작년 하반기 대비 크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상반기 누적 고철 수입은 184만 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 국내 구입은 936만 4천 톤으로 0.6% 감소, 자가발생 고철 구입은 256만 2천 톤으로 1.9% 감소함

53) 철강금속신문(2023.08.16.),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8/16/PS010816010100301B0001.pdf>(2023.08.17. 검색)

-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수입은 16.0%, 국내 구입은 19.5%, 자가발생 구입은 4.7% 증가한 수준임
- 누적 고철 수요는 1,369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 작년 하반기 대비 12.5% 증가함
- 지난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반기 원자재 수요가 급등한 것을 고려할 때, 올해 상반기 누적 물동량은 실질적으로 예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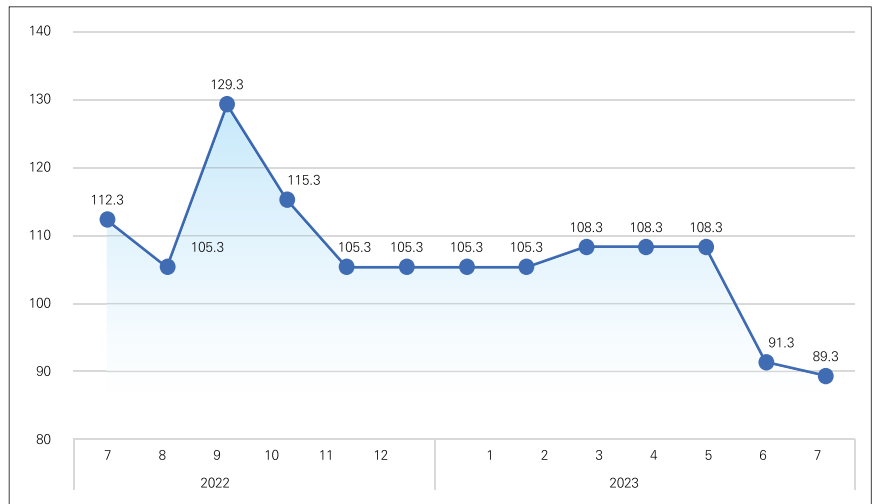
① 국내 열연코일 가격 감소세 지속

» 7월 열연코일(3.0×4.0×8.0mm) 가격은 전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20.5% 하락한 톤당 89만 3천 원을 기록함

- 지속된 수요 부진과 계절적 비수기 진입 영향으로 지난 '22년 11월부터 7개월간 톤당 100만 원대를 유지하던 열연코일 가격은 7월 80만 원 후반대까지 하락함

(단위: 만 원/톤)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112.3	105.3	129.3	115.3	105.3	105.3	105.3	105.3	108.3	108.3	108.3	91.3	89.3	-2.2	-20.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② 국내 상반기 누적 조강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⁵³⁾

» 국내 6월 조강생산량이 전월 대비 4.6%,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하면서 상반기 누적 조강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3,367만 2천 톤을 기록함

- 전반적으로 국내 조강생산량은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봉형강 수요 부족으로 전기로강 조강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나타남
- 한편, 지난해 국내 조강생산량은 9월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등으로 6,585만 6천 톤을 기록해⁵⁴⁾ 21년 7,041만 8천 톤 대비 6.5% 감소함
- 올해 조강생산량도 코로나 기저효과 감소와 건설 등 수요산업을 비롯한 경제 상황 악화로 지난해 대비 큰 개선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54) 철강금속신문(2023.08.14.),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8/14/PSO10814010100101A0001.pdf>(2023.08.17. 검색)



11) 자동차

① 6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6만 2,699대로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⁵⁵⁾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6월 내수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대기수요 해소 및 신차 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함

- 국산차는 전년 동월 대비 10.9%, 수입차는 13.5% 증가함
-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5.9% 증가한 52,031대이며,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로 하이브리드는 46.2% 증가, 1톤 전기트럭 판매 호조로 전기차는 전년 동월 대비 21.9% 증가함

» 수출은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으로의 꾸준한 수요와 국산 친환경차 인기가 지속되며 전년 동월 대비 39.9% 증가한 240,327대를 기록함

-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3% 증가한 65,871대, 전기차 수출은 128.9% 증가한 32,537대를 기록함
- 완성차 수출액은 대기수요 실현, 친환경차, 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증가, 고환율 지속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3%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하여 1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달성함
- 부품 수출액은 미국을 비롯한 EU, 인도, 아세안 국가 등 현지 자동차공장 생산 정상화, 이에 따른 국산 자동차 글로벌 판매량 증가와 연계하여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하여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함

» 생산은 견고한 글로벌 수요에 따른 수출 증가 및 내수판매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12.8% 증가한 370,293대를 기록함

- 해외생산은 중국, 슬로바키아, 인도네시아 등의 생산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한 317,845대를 기록함

55)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 (2023.07.28.),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88&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 (2023.08.16. 검색)

(단위 : 대, 백만 \$, %)

'23.6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률		
	연간	6월	1~6월	5월	6월	1~6월	전월비	전년 동월비	1~6월
내수	1,684,113	146,102	807,605	152,190	162,699	893,737	6.9	11.4	10.7
(국산차)	1,384,722	120,868	668,949	130,460	134,063	759,323	2.8	10.9	13.5
(수입차)	299,391	25,234	138,656	21,730	28,636	134,414	31.8	13.5	-3.1
수출	2,300,333	171,765	1,073,025	247,406	240,327	1,421,420	-2.9	39.9	32.5
(완성차 수출액)	54,067	3,934	24,338	6,198	6,229	35,653	0.5	58.3	46.5
(부품 수출액)	23,316	1,884	11,788	1,939	1,991	11,628	2.7	5.7	-1.4
생산	3,757,049	328,360	1,779,056	382,122	370,293	2,197,696	-3.1	12.8	23.5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3.07.28.),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88&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 (2023.08.16. 검색)

12) 잡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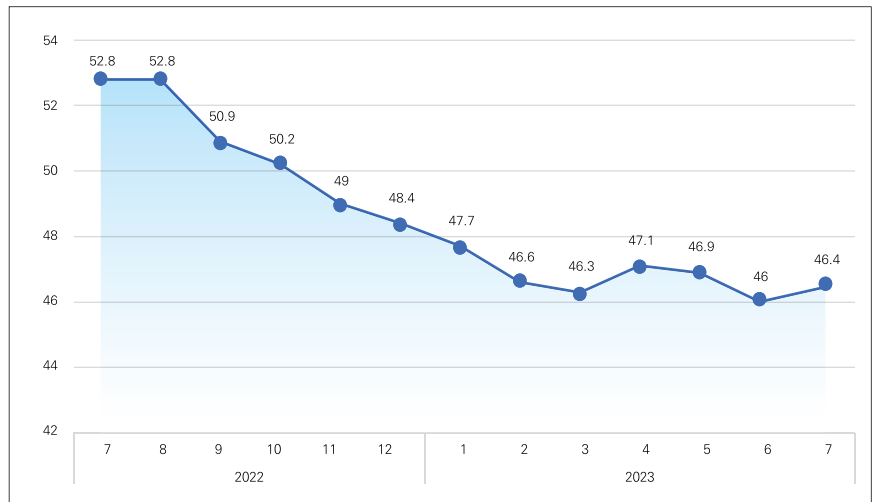
- 56)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는 매달 400개 이상의 구매, 공급 관련 기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서, 제조업체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 지수로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상태, 물가 등을 종합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과해 수치화함.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 미만은 경기의 축소를 의미함
- 57) Trading Economics (2023.08.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2023.08.18 검색)

① '23년 7월 ISM(미국 공급자관리협회)의 PMI 지수⁵⁶⁾ 46.4p로 전월 대비(46.0p) 개선되었으나 9달 연속 미국 제조업 경기 위축세 지속⁵⁷⁾

➤ 7월 제조업 부문 신규수주(45.6p→47.3p)와 생산(46.7p→48.3p) 고용(48.1p→44.4p) 모두 전월 대비 개선됨

- ISM은 3년 만에 최저치인 46.0p에서 소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기대치(46.8p)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제조업 수요 둔화가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상품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이동하면서 미국 제조업계가 수요 둔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미국 PMI(구매관리자 지수) 추이



자료: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13) 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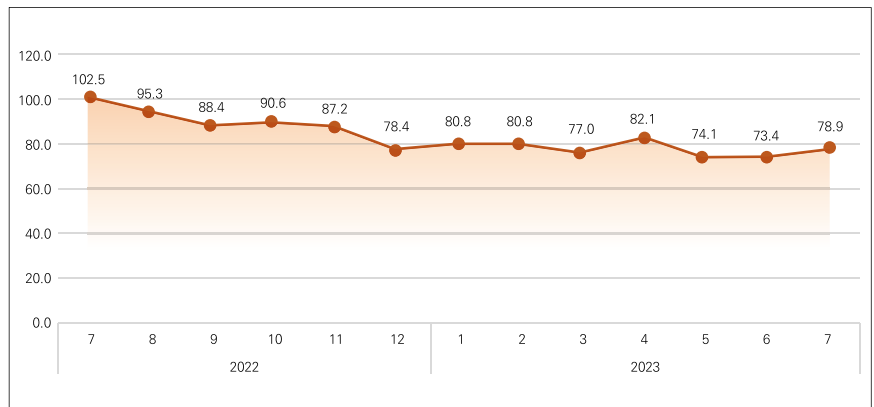
① 7월 국제유가, Dubai, Brent, WTI 모두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하락

»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오던 월별 유가는 '23년 7월 반등하면서 배럴당 평균 78.9달러를 기록함

- 급등했던 유가가 긴축 장기화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휴가철을 맞아 항공여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등함
- 다만, 러-우 전쟁에 따른 제재,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 OPEC+의 추가 감산 발표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시장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

(단위: US\$/bbl,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Dubai	103.1	96.6	91.0	91.2	86.3	77.2	80.4	82.1	78.5	83.4	75.0	75.0	80.5	7.3	-22.0
Brent	105.1	97.7	90.6	93.6	90.9	81.3	83.9	83.5	79.2	83.4	75.7	75.0	80.2	6.9	-23.7
WTI	99.4	91.5	83.8	87.0	84.4	76.5	78.2	76.9	73.4	79.4	71.6	70.3	76.0	8.2	-23.5
평균	102.5	95.3	88.4	90.6	87.2	78.4	80.8	80.8	77.0	82.1	74.1	73.4	78.9	7.4	-23.1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7.18. 검색)



② 중국, 6월 석유 수입 및 생산 급증⁵⁸⁾

» 중국은 내수 부진에 따른 석유제품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전년 동월 대비 45.3% 급격히 증가하는 등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월간 수입량을 기록함

- 이러한 석유 수입의 증가는 중국 정부가 민간 정유사에 부과했던 원유 수입 할당량 규제를 대폭 감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탈세, 석유제품 밀수, 정유사들의 배출 규정 위반 행위 단속 강화와 민간 및 국영 정유사의 원유 정제 통제권 회복을 위해 규제 조치를 시행했으나, 전체 수입량의 대폭적 감소를 유발한 바 있음
- 한편, 중국은 자국의 원유 생산을 늘리면서 세계 5위의 산유국으로 부상함

③ 인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최고치 기록⁵⁹⁾

» 블룸버그통신은 인도의 6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전월(196만 b/d) 대비 24만 b/d 증가한 220만 b/d를 기록했으며 이는 사상 최고치라고 보도함

- 인도 정유사들은 국제 대표 유종 대비 할인율이 높은 러시아 원유를 선호하며,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10개월 연속 증가함
-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인도의 두 번째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원유 수입량 합을 초과함
-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고객이었으나 제재 이후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축소함
- 반면, 세계 3위 석유 수입국인 인도는 국익을 우선시한다는 판단하에 서방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임
- 다만, 일부 전문가는 인도 정유시설의 제약과 원유를 공급하는 타 국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더 늘리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④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감산 및 러시아 수출 축소 1개월 연장으로 공급 감소⁶⁰⁾

» 사우디아라비아는 7~8월 시행 중인 100만 b/d 독자 감산을 9월까지 연장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량은 2년 내 저점 수준인 900만 b/d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시장 안정과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독자 감산을 추가 연장하거나 감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블룸버그는 OPEC+ 감산과 수요 회복으로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 등 경제 전망 불확실성으로 감산을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58)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7.20),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8.14.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8.14. 검색))

59)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7.25),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8.14.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8.14. 검색))

60)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8.04),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8.14.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8.14. 검색))

- » 러시아는 수출 축소 조치를 1개월 연장했으나, 수출 축소 규모를 50만 b/d에서 30만 b/d로 낮춤
- 블룸버그는 러시아의 해상 원유 수출과 정제투입량을 감안할 경우, 2월 대비 49만 b/d 낮아 러시아가 언급한 50만 b/d 감산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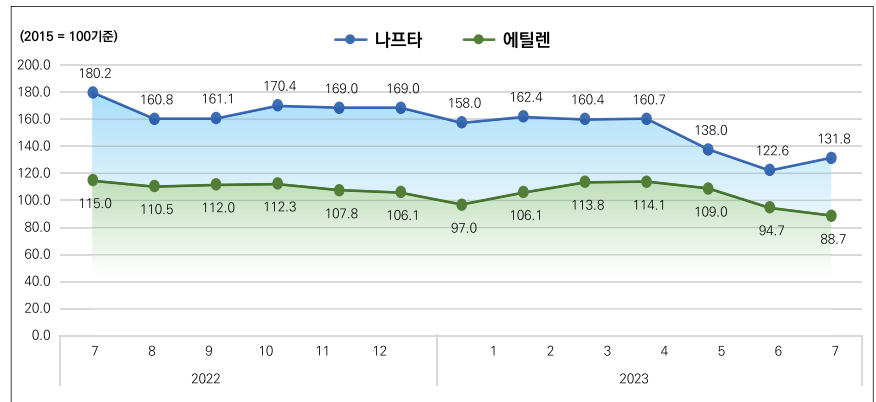


14) 화학공업생산품

① 7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상승 및 에틸렌 하락

- » 유가 상승으로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했으나 수요감소로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23년부터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가 정체 현상을 보이다 최근 크게 하락 후 반등하였으나, 에틸렌은 상대적으로 최근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중국 석유화학공장 신규 가동에 따른 경쟁 심화와 경기둔화 등으로 업황이 부진한 상황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80.2	160.8	161.1	170.4	169.0	169.0	158.0	162.4	160.4	160.7	138.0	122.6	131.8	7.5	-26.8
에틸렌	115.0	110.5	112.0	112.3	107.8	106.1	97.0	106.1	113.8	114.1	109.0	94.7	88.7	-6.3	-22.9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3.08.24. 검색)

② 정유사, 신사업으로 투자한 석유화학 불황으로 손실 우려 증가⁶¹⁾⁶²⁾

» 정유업계는 석유화학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공장 설비 등에 대규모로 투자했으나 업황 부진으로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국내 주요 정유사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유가가 흔들리면서 정유사업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사업의 일환으로 석유화학에 '조 단위' 투자를 단행함
- 에스-오일은 '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9조 원 이상을 투입해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인 '샤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GS칼텍스는 2조 7,000억 원을 투자해 '22년 전남 여수에 올레핀 생산시설(MFC)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함
-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합작으로 3조 원 이상을 투자한 대산 HPC 공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유업계는 석유화학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으나 수익성을 가능할 수 있는 에틸렌 스프레드(제품에서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 제외한 금액)가 부진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수익 개선이 요원한 상황임

» 석유화학 기업들은 기후변화 시대와 수소 사회 전환에 따라 성장성이 낮은 석유사업 대신 배터리, 친환경 소재, 신약 등으로 주력 사업을 옮겨가고 있음

- 석유화학에 투자한 정유업계는 업황 부진으로 난감한 상황이나, 하반기 업황이 회복세로 돌아서면 예상보다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또한, 정유사는 리스크 분산을 위해 석유화학 사업 외에도 친환경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수익을 보고 투자하였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③ 석유화학업계, 불황 속 신사업 확대⁶³⁾⁶⁴⁾

» 올해 2분기 실적 부진을 겪은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으로 위기를 극복할 계획임

- 올해 2분기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은 영업손실 13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으며,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영업이익은 492억 원으로 전년 동기(2,354억 원) 대비 79.1% 축소됨
- 중국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석유화학업체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적 핵심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제품가-원가)가 손익분기점을 넘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석유화학업체들은 신사업 비중을 늘려 위기 극복에 나설 전망이다

61) 뉴데일리경제(2023.07.20.),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0/2023072000112.html>(2023.08.14. 검색)

62)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7.20.),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706(2023.08.14. 검색)

63) 머니S(2023.08.02.),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80116323660621>(2023.08.14. 검색)

64)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8.02.),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726(2023.08.14. 검색)

- » LG화학은 양극재·음극재·전해질, 배터리 4대 구성요소인 분리막 사업에 집중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받기 위해 올해 안에 현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
 - 또한, 양극재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리튬인산철(LFP)과 망간리치 등 중저가 양극재 제품 군도 검토하고 있음

- »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사업에 집중하면서 미국 공장 증설에 따른 IRA 첨단세액공제 (AMPC) 수혜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됨
 - 내년 말 상업생산을 목표로 조지아에 각각 3.3기가와트(GW) 규모 잉곳·웨이퍼·셀·모듈 통합 생산 단지를 구축할 방침이며, 올해 기존 조지아 달튼 공장 생산능력을 5.1GW로 확대할 계획임
 - 신·증설이 끝난 후 본격적인 생산이 이뤄지면 한화솔루션은 연간 1조 원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됨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최석우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3. 8. 25

편집 겸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